

목포시,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착착 준비

2023년 10월 개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 운영위 구성해 시설 확충·수용 태세 확립 등 체계적 추진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0월 개최되는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빅이벤트로 삼아 2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자세로 양대 체전을 준비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체계 구축 ▲체전시설 확충 ▲시민참여 확대 ▲손님맞이 준비 등을 골자로 하는 체전준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열리는데 목포에서는 개·폐회식 및 농구·육상 등 12개 종목이 개최된다. 제43회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진행되는데 목포에서는 볼링, 역도 등 8개 종목이 진행된다.

시는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목포국제체육센터 인근에서 추진 중인 목포종합경기장

장 건립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육상 경기와 함께 개·폐회식이 진행될 메인스타디움으로 총 공사비 920억원(국비 200, 도비 230, 시비 490)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6,468㎡ 규모다.

시는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운동장 조성 및 마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국제축구센터,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카누경기장, 부주산 체육공원 클라이밍센터 및 테니스장 등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시는 목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대 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등 대회 준비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짜여질 운영위는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장애인체육회 등 유관 기관·단체가 중심이 돼 체전 준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전 집행부는 전국체전추진단을 중



심으로 1단17부74팀으로 구성돼 경기장 시설 확충, 수용 태세 확립, 도심 미관 정비, 체전 홍보 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지원, 학교시설 지원, 경비·경호, 교통·보안, 안전·구조·구급대책 등 각 분야별 준비를 실행한다. 이에 더해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범시민 서포터즈'도 올해 하

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대 체전은 목포를 스포츠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다"면서 "차질없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송아지 구제역 백신 무료접종 실시

오늘부터 31일까지...7,481두 대상

함평군이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송아지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한우 및 젃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송아지 구제역 백신 정기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연간 4회 진행되며, 그 중 2월과 8월은 송아지 위주로 접종이 실시된다. 접종 주기는 2개월령에 1차 접종이 실시되며,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군은 공수의를 동원해 관내 1,005개 농가 7,481두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김광훈기자

'천일염의 가치를 잇다'

신안군, 소금박람회 개최

1004석 신안군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소금박람회」를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라남도·영광군과 함께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천일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행사 등 분산하여 운영되는 아쉬움이 컸으나 이번에 개최되는 소금박람회는 6개의 테마관 48개 부스에서 천일염 정책·제도, 가치·우수성, 생산과정 등의 정보 전달 및 소금의 역사, 활용 방법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운영되며,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이덕주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화재현장 방문해 피해주민 위로 휴가도 반납하고 화재현장 방문...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영암군은 우승희 군수가 지난 12일 삼호읍 아파트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였다고 밝혔다.

삼호읍 아파트 화재는 11일 22시 40분경에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만에 진화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외국인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호실 1개가 전소되었으나 외국인 50여명이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에서는 유사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외국인 대상 화재 신고요령 교육,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상심이 크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란다"며, "지난 안전 예방책을 공고히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산림공원과 주요 현안사업 현장 3곳 방문

문제점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8월 10일 산림공원과 주요 현안사업 현장 3곳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금번 현장 점검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현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면서 문제점 점검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성산근린공원은 24ha에 숲속 산책로 4km, 녹죽원 10ha, 파크골프장 18홀, 어린이 숲 체험장 3ha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숲속 둘레길 1.6km 중 1.2km를 우선 개설하였으며, 국비 6억원을 활용하여 잔여 둘레길 0.4km와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 현장은 안골계곡 인근 남산2체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에서 휴식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방댐과 생태계류를 활용



한 습터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여름철 피서할 수 있도록 8월 한달 간 임시 개방 중으로 오는 9월 중에 미정비 구간 100m에 대해 사방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암산 산림욕장은 편백나무와 삼나무 등이 잘 가꾸어진 장암산에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면적 10ha에 산책로 1.5km, 잔디광장, 전망대, 편백 숲 습터, 디스크 골프(9홀), 카트체험장을 2021년 10월에 준공하여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꿈을 담은 디저트 만들기' 인기리에 성료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돌봄기관 이용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4기에 걸쳐 꿈을 담은 디저트 만들기 전문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전문교육으로 지역 복지지원 연계 협약기관인 초당대학교 지역공헌센터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이번 교육을 위해 초당대학교 재교재학과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강의를 지원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재교재 체험수업 진행을 위해 재교재능장인 호텔조리학과 김양훈 교수가 피자빵, 초코칩 쿠키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고 아이들이 직접 꿈을 담은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